

마치 아닌 마치로 툭툭 때려서 모든 걸 근본에 보라!

21면에서 계속

으니까 무슨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죠? 상전에 물건 사라 가서 그 돈 주고 물건 가져왔는데 도둑놈으로 몰릴 것이 뭐 있었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게 생각해보면 아주 정정당당하고 질서적이고 도의적이고 의리적이고 빈틈이요 만큼도 없는 삶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상천세계로 넘어가려면...

문 불교 교리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삼계(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삼계를 하천, 중천, 상천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인 중천세계에서 벗어나 상천세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이게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게 화랑지옥이 따로 있고 오간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간지옥은 그 안의 지옥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화랑지옥이고 무슨 지옥이고 무슨 지옥이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천세계는 어떠한 거냐? 이 중천세계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중천세계를 뜻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종류도 많지만 차원이 많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의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얼마나 해매고 돌리니까? 또 내 마음으로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 교도소에 얼마나 지금 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가 많습니까? 자식들이 괴롭혀서 괴롭고, 부부지간에 괴로워서 괴롭고, 부모자식지간에 괴로워서 괴롭고, 여간 많지 않습니다. 종류가. 사업에 실패해 해서 괴롭고, 남이 나를 떨어뜨려서 괴롭고, 내가 남을 떨어뜨리니 괴롭고. 연방 같이 상대로 하여져 가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올라가면 밑에서 처벌하고 위에서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 지속된 중천세계의 이 맛을 우리 지금 인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세파에서 왜 이렇게 중두난발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게끔 만들어지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몸체에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개 각자 인연에 따라서 5억이라는 생명이 지키한 데 부합이 된 겁니다. 이게. 자기 인연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부합이 되고 은은 은대로 부합이 되고 무쇠는 무쇠대로 부합이 되고. 이렇게 부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단체가 된 것이죠. 단체가 돼서 이론 것이 이 집입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 이 집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인연에 따라서 집을 지어 가지고 딱 내가 거기서 한생각에 이것이 잘되면 풍광이게 한데 합쳐서 하나로 뭉쳐져서 상천세계에 이르고 부합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상천세계가 아니라 중천세계에서 윤회에 그달리면서 돌아간다면 이 씨가 그냥 중천세계에 떨어져서 그냥 모두가 화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대로 이것도 같이 부합이 돼서, 만약에 내가 남마의 차원이려면 남마의 차원으로 이 씨가 여자의 모든 것이 부합이 돼서, 모든 게 인연에 따라서 내가 나의 그 씨를 만든 것이 바로 남마씨니까 내가 가는 대로 또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뱃속에서 넣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마찬가지로 살아도 마찬가지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은 집합된 한 단체에서 내가 한생각에 이것이 은이 되느냐 금이 되느냐, 무쇠가 되느냐 남마가 되느냐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같립니까. 이 중세제라는 이 뜻이. 같립니까. 이 같립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상천세계에 가느냐 이겁니다. 상천세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도 상천세계를 응시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못 가고 대학원을 못 가듯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못하게 돼서 못하는 결과도 있죠. 그것도 자기 업보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두 중두난발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도 질서 있게 차원대로 잘 이끌어 돌아가고 있죠. 우리 공평에서 돌아가고, 또 간에서 돌아가고, 또는 직장에서 돌아가고, 위에서 돌아가고 이 오장육부에서 다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지구 별레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지구도 우리 한 몸통으로 비유해 보세요. 꼭 우리 몸통이와 한가집니다. 지구 한 후성이. 인간은 왜 불성이라고 했을까? 오전 작게 모인 단체인입니다. 생명들이 모인 단체인입니다. 그런데 이 큰 단체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성, 불성 이렇게 말을 하죠.

뾰족한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상천세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당신 몸이 5억이라는 그 생명체가 당신의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한데 합쳐졌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그

네들이 다 나로부터 같이 모여진 자체의 하나로 뭉쳐서,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돌아갈 때에 그 난소를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5억이 돈다 이겁니다. 5억이 돌아서 하나 끝인될 때에 전부 물체는 없어지고 자기 근본만 한데 합쳐집니다. 근본에 근본이 한데 합쳐지면서, 이 물체는 한난데 이 근본이 한데 합쳐지니까 하나로 될 수밖에. 하나로 돼서 이것이 임신을 해서 낳을 때 다시 자기 인연에 따라서 뭉친 그, 영혼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이 바로 한데 합쳐져 가지고 자랄 때 다시 분배해서 소임을 맡아가고, 우리 뱃속에서 지금 오장육부에서 세포를 타고 또 자기 소임을 맡아가고 제각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각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하여금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작용을 하고, 모든 걸 작용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작용을 내게 하는 고놈이 누

역이라는 것이 나한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으로도 5억이고 5억이면서도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고정되게 한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 속에서도 고정되게 한 분야만 맡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몇 번씩 말하고 몇 번씩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달랠요. 만나는 대로 마음이 달라지는 걸요. 그게 근본적으로 아주 자동적이죠. 즉 말하자면 이 작용을 하는 것이 근본이 장소에서만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옛적에, 즉 말하자면 억억 천년 전에서부터 작용을 해서 나온 장소도 이 장소요, 억억 천년 전에서부터 그 작용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옛물도 없고 옛 사람들도 없고 옛 산도 없다는 얘기죠.

기공법을 수련하는 것과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기'란 무엇이며 불법 공부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답 '기'라는 건 옛날에도 그렇고, 스님네들 아니더라도 학자들이 이런 분들은 기를 가지고 몸을 다스렸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거는 기를 단전으로 해서 기를 이렇게 모아서 풀어 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 세상에 어려우냐. 지금 단전을 하고 기를 모아서 제대로 하질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머리로 기가 그냥 올라가서 영 일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나. 몸이 비틀리는 사람이 없나. 그냥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귀로다 그냥 그 뜨거우게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가정이 아주 파탄이 오게 되는 사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몸의 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몸의 기를 잘 다스리려면, 정돈을 하고 잘 다스리려면 바로, 몸에 들어있는 의식들이 작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거는 몸을 다스리는 거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 있는 그 의식들, 생령들 그것들이 아랑곳 없습니까. 같이 동일하게 작용을 해 주지 않습니다. 신원에서는 관법(觀法)을 가르칩니다. 이 마음으로 내가 꼭 '너만이 알아!' 할 때에 '아, 너고 나고 없구나. 모두 나야!' 하고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놓으면 이 누진(漏盡), 머리보다가 통신이 돼서 그 머리로 통신이 되면 하달이 돼 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이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을 만하냐? 이것은 그 속에서 이 주인공 자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잘 못했는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작용을 해 주는 거죠. 저서서 모자라면 여기서 보태고, 여기서 모자라면 저서서 보태고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다룰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삶이 됐으면 삶을 뺄 수도 있고, 삶을 찌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 가지고 하다가 보면 잘못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몸통이 떨어지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몸이 떨어지고 말 떨어지고 행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전발이 돼서 무정물들도, 또는 저런 과일 나무들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발이 돼 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 마음도 마음과 마음이 전발이 돼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 가면서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이죠. 그러나 몸도 얼마든지 자재로 이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모두 잠재의식이 관습에 의해서 돼 있고,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도 다 그냥, 그냥 탁 맡길 수가 있습니다.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자기 공에다가 모든 걸 보라!

믿고 보라!

믿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

놔야만 상천세계에 등장할 수가 있다

군가 하는 거는 바로 그 5억이라는 게 한데 뭉합이 돼서, 한데 합쳐져 가지고 공해서 돌아가니까 바로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을 어떠한 데다가 기준을 두느냐. 어떤 데다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간에서 생각이 나오고 공평에서 나오고 이렇듯이, 이게 어느 한 공평 동네라던지 동네에서 야단 저 동네에서 야단 이러니가. 이것이 여기서 돌아가는 대로 여기는 자꾸 생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탐지거나 컴퓨터나 이 영사기나 녹음기나, 이 문제가 여기에 오관을 통해서 다 있다는 얘깁니다. 무전기도.

그러면 이 우주간 법계가 다 뚫었다는 얘깁니다. 통했다 이 소립니다. 그대로 우리가 여여하건만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마음이 나는 대로 요동치는 거죠. 자꾸 망상이 생기고 그러는데, 망상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 오직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즉 말하자면 마치 아닌 마치로 툭툭 때려서 그냥 모든 걸 거기다가 보라 이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주인공으로 이름을 했다면 주인공에다 모든 걸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이 다 그렇게 5

억이라는 것이 나한테 실제로 지금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으로도 5억이고 5억이면서도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고정되게 한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장육부 속에서도 고정되게 한 분야만 맡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몇 번씩 말하고 몇 번씩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달랠요. 만나는 대로 마음이 달라지는 걸요. 그게 근본적으로 아주 자동적이죠. 즉 말하자면 이 작용을 하는 것이 근본이 장소에서만 작용을 한 게 아니라 옛적에, 즉 말하자면 억억 천년 전에서부터 작용을 해서 나온 장소도 이 장소요, 억억 천년 전에서부터 그 작용을 하고 나온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옛물도 없고 옛 사람들도 없고 옛 산도 없다는 얘기죠.

기와 불법 공부에 대해서

문 전해 내려오는 수행법 중에는 몸의 기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기공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 경추: 경두통, 불면증, 신경과민, 두통, 어지럼증, 목덜미가 뻣뻣함
- 흉추: 심장, 폐, 기관지, 위장, 신장, 대장, 위장장애, 소장
- 요추: 변비, 요통, 골관절염, 좌골신경통, 허리손상, 통풍, 생리통
- 신경: 좌골신경통, 척추관협착증, 신경근, 생리기형
- 미: 직장, 치질, 주: 꼬리뼈의 통증

특점 속성 반

- 수료자는 본형회, 단중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 수련안내
 - 기 간: 2007년 4월 12일부터
 - 주 간 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4주)
 - 1박2일코스: 2007년 4월 12일 오후 2시 부터 13일 오후 4시까지
 - 장 소: 본 협회(충분관)
 - 수련비용: 40만원(속성반)
 -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에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민)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충분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켜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유방관절염의 유방관절염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친경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간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환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제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계양에관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방민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더,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앰프, 설비 전문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폭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으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을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면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관이 막혀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